

‘인생역전’ 광부 “보건 시설, 학교 지을 것”



▲ 탄자나이트 원석2개작은 사진을 매각한 뒤 확인 증서를 들고 있는 탄자니아 광부 사니니우 라이저. 사진=ABC News 캡처

탄자니아의 가난했던 광부의 인생역전 사연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니니우 라이저라는 이름의 52세 탄자니아 남성은 지난 6월 탄자니아 북부에 있는 광산에서 6.3kg의 탄자나이트를 발견했다. 탄자나이트는 규산염광물의 일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탄자니아에서만 산출되는 보석이다.

세계 4대 보석에 준하는 가치를 지닌 탄자나이트는 단단한 암석 속에 매우 드물게 박혀있으며 ‘아프리카의 푸른 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엄청난 희소 가치를 자랑하는 만큼 20년 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에 대형 탄자나이트를 발견한 라이저는 이를 경매시장에 내놓았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일 열린 경매에서 라이저가 캐낸 6.3kg의 탄자나이트는 200만 달러에 최종 낙찰됐다.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두 달 전에도 탄자나이트 두 개를 캐내 거액을 받고 경매로 매각한 인생역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6월 라이저는 각각 9.2kg, 5.8kg의 탄자나이트를 캐낸 뒤 이를 340만 달러에 매각했다.

불과 두 달 새 억만장자가 된 그는 소감을 묻는 주민들에게 “북부 만야라 지방에 공동체를 위한 보건 시설과 학교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또 “큰돈을 벌게 됐다고 해서 내 생활이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소 2,000마리를 돌보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라이저는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자녀 30명을 양육하고 있다.

갓난아기 안고 ‘오토바이 택시’ 모는 아빠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오토바이 택시’를 모는 아빠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38살의 응웬 쫁 허우. 그는 8개월 된 아들을 품에 안고 호치민에서 그랩바이커(Grab Biker, 오토바이 기사)로 일하고 있다. 그랩바이커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오토바이 택시’다.



▲ 응웬과 그의 아들. 사진=Vetnamtimes 캡처

과거 그는 은행 대출을 받아 과감히 개인 사업에 도전했지만, 사업 실패로 거의 전 재산을 잃고 작은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그의 아내는 슈퍼마켓의 영업 사원으로 일하게 됐고, 그는 그랩바이커로 일을 시작했다. 문제는 자녀들을 돌봐 줄 손길이 부족하다는 것. 큰아들은 부모님께서 돌봐주고 있지만, 70세가 넘는 나이에 노점상을 하는 터

라 둘째까지 맡길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둘째를 품에 안고 오토바이에 오르게 됐다. 아기띠, 기저귀, 우유, 레인코트, 타월 등 온갖 아기용품들을 오토바이에 싣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다.

하지만 종종 쏟아지는 폭우에 아기가 젖는 난감한 일이 발생하곤 한다. 아무리 레인코트를 입혀도 매서운 폭우에 온전히 아기를 보

호하기는 힘들다. 그는 “아기가 너무 많이 울면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탑승을 거부하는 손님도 적지 않다. 물론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아기를 안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기를 생각하면 밤잠도 설치게 된다.”고 말했다.

무인도 표류 선원들, 모래사장 ‘SOS’ 덕에 구조

태평양의 한 무인도에 표류한 선원들이 모래사장에 쓴 대형 ‘SOS’ 덕에 구조됐다.

지난달 30일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선원 3명은 소형 선박을 타고 풀루왓 섬에서 출발해 풀랍 섬까지 42km 항해에 올랐다. 그러나 항로를 이탈하면서 연료가 바닥났고, 목적지에서 200km 떨어진 파이크롯 섬까지 떠내려갔다.

선원들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자, 미국 해안경비대 합동구조지원센터에 수색 요청이 들어왔다. 미 해안경비대는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작전 중이던 공중급유기 KC-135를 급파했다. KC-135는 수색 3시간 만에 실종 선원들을 발견했다.

미 공군 관계자는 “모래사장에 쓰인 SOS 메시지와 인



▲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의 파이크롯 섬에 표류한 선원 3명이 모래사장에 쓴 대형 ‘SOS’덕에 구조됐다. 사진=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

근에 정박한 보트를 통해 실종 선원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즉각 인근을 항해하던 호주군함 ‘캔버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호주군은 헬기를 날려 선원들에게 물과 식량을 투하했다. 이어 파견된 미 해안경비대 C-130 수송기도 3일 저녁 무전기를 떨어뜨려 실종선원들과 통신을 이어갔다. 해안경비대는 “코로나19 때문에 선원과 구조대 간 거리 유지가 필수였다. 노출을 최대한으로 피하면서 수색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미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은 600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서태평양의 국가다. 실종 선원들이 발견된 파이크롯 섬은 500m도 되지 않는 작은 산호초 섬으로, 수풀이 우거져 다양한 바닷새들이나 거북이들이 서식하는 무인도다.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